## 다시 푸는 경서

### 수심결(修心訣) ⑧

聽我言說 從朝至暮 十二時中
청아언설 종조지모 십이시중
或見或聞 或笑或語 或瞋或喜
혹견혹문 혹소혹어 혹진혹희
或是或非 種種施爲運轉 且道畢
혹시혹비 종종시위운전 차도필
竟是誰 能伊麼運轉施爲耶
경시수 능이마운전시위야
若言色身運轉 何故有人 一念命終
약언색신운전 하고유인 일념명종
都未壞爛 卽眼不自見 耳不能聞
도미괴란 즉안부자견 이불능문
鼻不辨香 舌不談論 身不動搖
비불변향 설부담론 신부동요
手不執捉 足不運奔耶
수불집착 족불운분야
是知能見聞動作 必是汝本心
시지능견문동작 필시여본심
不是汝色身也
불시여색신야
況此色身 四大性空 如鏡中像
황차색신 사대성공 여경중상
亦如水月 豈能了了常知 明明不昧
역여본심 기능요요상지 명명불매
感而遂通恒沙妙用也 故云神通
감이수통항사묘용야 고운신통
幷妙用 運水及搬柴
병묘용 운수급반시
왈차시제불제조수명 갱막의야

## 보고 듣고 말하고 동작하는 것은 그대의 본심이지 육신이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갖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를 말해보라. 만약 육신이 동작하게 한다면, 어째서 금방 명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러므로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四大: 地,水,火,風)의 성품은 비어서 거울 속의 형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갠지스강의 모래 수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은 물을 길고, 나무를 운반하는데 있다' 하였다. 즉 물을 길고 나무를 나르는 일상의 생활을 뜻한다.

且入理多端 指汝一門 令汝還源
차입리다단 지여일문 영여환원
汝還聞鵑鳴鵲噪之聲麼 曰聞
여환문아명작조지성마 왈문
曰汝返聞汝聞性 還有許多聲麼 曰
왈여반문여문성 환유허다성마 왈
到這裏 一切聲一切分別 俱不可得
도저리 일체성일체분별 구불가득
曰奇哉奇哉 此是觀音入理之門
왈기재기재 차시관음입리지문
我更問爾 爾道到這裏 一切聲
아갱문이 이도도저리 일체성
一切分別 總不可得 旣不可得
일체분별 총불가득 기불가득
當伊麼時 莫是虛空麼 曰元來不空
당이마시 막시허공마 왈원래불공
明明不昧 曰作麼生 是不空之體
명명불매 왈작마생 시불공지체
曰亦無相貌 言之不可及
왈역무상모 언지불가급
曰此是諸佛諸祖壽命 更莫疑也
왈차시제불제조수명 갱막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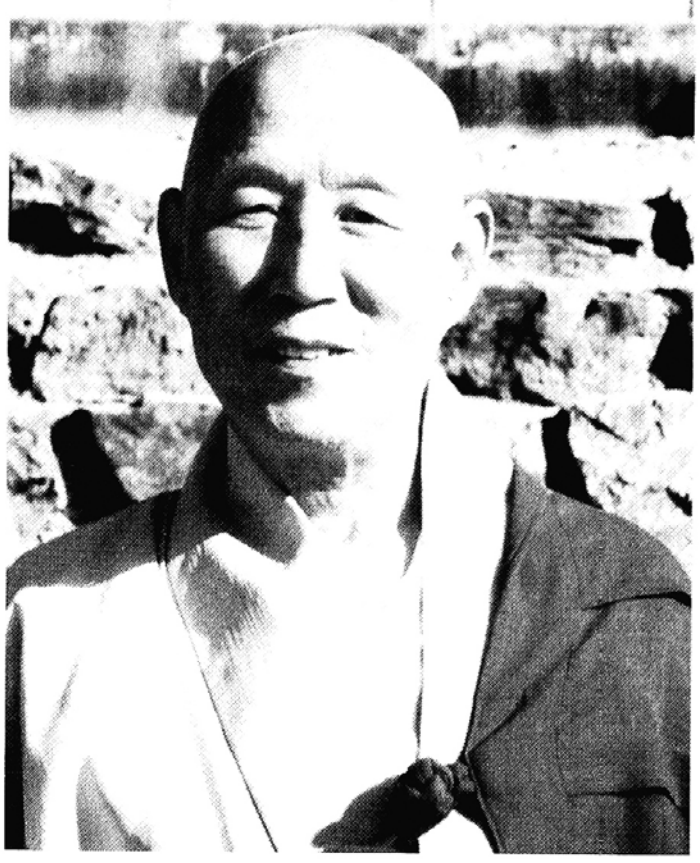
그리고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켜서 그대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그대는 돌이켜서 그대가 듣고 있다는 성품을 들어 보아라. 거기에도 많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이것이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간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러한 때는 허공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 큰스님 수행한담

# "나쁜생각을 하나씩

## 서운스님〈서곡정사 주지〉



바깥 세상은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만 이곳 강원도 두메 산골의 산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계절이 바뀔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욱 흘러 내리는 한여름 전국의 선방 스님들은 하안거 결제 를 하고, 백중날 백일 용맹 정진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재와 회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재는 시작으로 회향은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작과 끝의 의미가 아닙니다. 입재란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삶에 대해서 조촐히 되새겨보고, 마음을 깨끗이 닦겠다는 다짐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에 비해 회향이란 의미는 기도로써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기도해서 얻어진 공덕은 나혼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했을 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 기도의 덕을 골고루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 정신인 것입니다.

공덕은 나눠 가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야만 더 행복해 집니다. 바로 여기에 회향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향이란 단지 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발원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들 가운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원을 세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강, 사업성취 등 생노병사에 닿아 있는 절박한 소망들이지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살이고자 한다면 그런 발원보다는 마음 하나 청정 하기를 발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공덕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또 이웃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공덕은 나누는 것이고 이웃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말 자체가 회향이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가장 좋고 바람직한 것이 너나 없이 바라는 복(福)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을 짓고 나누고자 한다면 우선 각자 스스로 복밭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실천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삼업이라면 신(身) · 구(口) · 의(意)를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몸으로 짓는 행위를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또 입으로 짓는 네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 즉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 것. 둘째는 입에 발린 쓸데 없는 말이나 아첨을 하지 말 것. 셋째는 양설이라 해서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 것. 넷째는 악담 즉 상스러운 말이나 욕을 하지 말 것 등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뜻, 즉 마음으로써 짓는 악업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이 모든 행동을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설하셨지요.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 마음으로부터 말과 몸으로 짓는 행위들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업(業)이란 마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선업이든, 악업이든 결정짓고 나서 몸의 업이나 말의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와 부처님을 모시고 산지도 70여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문득 삼업을 짓고 살아가는 내자신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나는 7살 때 동해 삼화사에서 동진 출가해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실부모한 내게는 부처님이 부모요 절이 집이었습니다. 은사는 호응스님이셨는데 매우 엄격하신 분이었지요. 부모에게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 인데도 청소와 공양 짓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사시사철 어김없이 예불 시간이 되면 나를 잡아 깨워 은사 스님과 함께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침 예불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만약 스님이 출타하셨을 경우 돌아오셔서 불단에 향을 피운 흔적이 없으면 예불을 모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 엄하게 받은 교육 덕분에 70여년동안 예불 모시는 일 만큼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했습니다. 만행이나 포행을 나가도 작은 불상을 모시고 나가 야외에서 시간에 맞춰 예불을 모실 정도이니까요.

이렇게 엄격하셨던 은사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깨우치도록 유도 하셨습니다. 자상하게 무엇인가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스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가의 목적입니다.

스님은 〈오복덕전경(五福德田經)〉을 인용해 "첫째 출가는 생사를 벗어내려는 마음을 내어 수도하기 위함이며 둘째 사치를 버리고 법복(法服)을 입기 위함이며 셋째 목숨을 던져 도법(道法)을 따르기 위함이며 넷째 모든 애정을 버리고 사랑도 미움도 초월하기 위함이며 다섯째 대승법을 간절히 구하여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스님의 곁을 떠나 22세때에는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를 졸업하고 24세가 되어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두철을 참선 정진했습니다. 마하연 선방은 당시 북쪽에서 가장 큰 선방으로 1백여명의 대중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철저한 규율과 통제속에서 정진 했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화두참선, 염불, 기도 등 수행할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화두 참선에만 매달렸습니다.

**약력**

- 1914년 강원도 강릉 생
- 21년 호응스님을 은사로 득도
- 33년 계룡산 동학사 사교과 졸
- 36년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 졸
- 43~47년 동해 삼화사 주지
- 47년~57년 치악산 상원사 주지
- 71년~75년 영월 보덕사주지
- 75년~현재 영월 서곡정사에 주석

### "삼독 벗어나 평화로우려면 자기 참모습 스스로 참구하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도서출판 황금꽃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특이할 만한

# 구도의 대지침서

## 제3의 눈을 찾아서

저자 도엽

제3의 눈의 개안(開眼)은 모든 구도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본(大本)이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간의 수행과 체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구도서이다.

석가모니 부처나 보살들의 이마에 제3의 눈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白毫)' 혹은 '영안(靈眼)' 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동방의 샛별' 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방의 샛별은 옛날부터 '영안' 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는 부처님은 비파싸나 호흡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파싸나 호흡법은 영안 집중과 분리할 수 없는 호흡법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제3의 눈을 열자!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 12,000원

"제3의 눈은 유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육체는 죽지만 제3의 눈은 그대와 함께 이동한다. 그것은 새로 탄생한다. 두 번째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탄생, 죽음, 재탄생, 재죽음의 반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의 눈의 계발이,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 다음은 부처, 신의 단계, 우주와 하나가 되는 단계뿐이다. 그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3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의 예속(隷屬)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가미사마, 또는 귀신, 조상(祖上)들 등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 중에 나를 만나면, 즉시 죽여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 본문 중에서 –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하는 책이나 테잎들을 전화나 팩스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중, 매년 5분을 추첨하여 인도 무나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 로 초대합니다

# '고타마 붓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오쇼의 이야기 !

–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 인 20명의 선사(禪師)들에 대한 강의 –

정가 9,000원

고타마 붓다 / 보현(菩賢)
곽산 / 석두(石頭)
남전(南泉) / 수산주(修山主)
대수(大隨) / 앙산(仰山)
대자(大慈) / 위산
마조(馬祖) / 유관(惟寬)
문수(文殊) / 장경(章敬)
바쇼(Basho) / 장사(長沙)
법안(法眼) / 조주(趙州)
보리달마(菩提達磨) / 혜각(慧覺)

5월 19일 출간

무심 그 영원의 꽃들

저자 오쇼 / 옮긴이 류원장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도(神道) 신사(神社)의 영능력자인 카츠에 이시다는 오쇼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미륵불(彌勒佛, Maitreya The Buddha)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그는 21세기의 유토피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파괴적인 힘이 그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극물에 중독된 사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사탄은 흔히 독극물을 중독시키는 자이지, 독극물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오쇼를 보호해야 한다. 부처가 그에게 들어갔다."

카츠에 이시다

"7주 동안의 투쟁의 마지막 날, 모든 고통이 나의 육체로부터 사라졌다.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 마지막 날 밤, 한밤중에 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무도 나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나는 눈을 떠야 했다. 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문득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이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손님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향기로웠다. 나는 그를 선뜻 내 가슴 안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수한 빛의 몸은 다름 아닌 '고타마 붓다' 였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눈 속에서 내가 내 안으로 흡수하였던 그 불꽃을 볼 수 있다. 2,500년 동안 은신처를 찾아 지구를 배회했던 불꽃을." – 오쇼 –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